

2027
고2 문학
비상

2027 고2 문학 비상 | 1(2)(2) 쉽게 씌어진 시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보기>를 활용하여 시대적 상황이나 다른 작품과 연관 지어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인 만큼 수능형 문제까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에 나타난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시어가 상징하는 바를 대립적 이미지의 틀 안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자아가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활용하여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② 특정 연을 변형하고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실내에서 실외 창밖으로 시선을 이동한 후, 다시 내면으로 초점을 옮겨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점층적으로 영탄적 표현을 심화하여 암울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⑤ '밤비'와 같은 소재를 활용하여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암시하고 시적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2. 이 시에 나타난 중심으로 나타난 대립적 이미지와 시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밝음	어둠	②	상승	하강
	아침	밤비		등불	침전

③	긍정	부정	④	내부	외부
	악수	눈물		최후의 나	늙은 교수

⑤	정적	동적
	대학 노트	손을 내밀어

8. <보기>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A]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B]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 ① [A]의 '나'는 현실을 비관하며 자아 성찰을 포기한 반면, [B]의 '최후의 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드러낸다.
- ② [A]의 '나'는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를, [B]의 '최후의 나'는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적이고 내면적인 자아를 의미한다.
- ③ [A]의 '나'는 과거 지향적 태도를, [B]의 '최후의 나'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④ [A]의 '나'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B]의 '최후의 나'는 개인의 희생을 통해 공동체의 구원을 소망한다.
- ⑤ [A]의 '나'와 [B]의 '최후의 나'는 모두 화자가 꿈꾸는 이상적 인간상을 상징한다.

[9~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A]

㉢맘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B]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C]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D]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E]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처한 공간적 배경이 타향임을 드러내며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암시한다.
- ② ㉡: 시인이라는 자신의 운명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창작의 어려움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③ ㉢: 현실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무기력한 삶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절망적인 내면 상태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 시 창작 행위가 현실의 어려움에 비해 너무 쉽다는 인식을 통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윗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
- ② 과거의 순수했던 삶을 현재의 무기력한 삶과 대비하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 ③ 윤리적 자기 성찰을 통해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 ④ 암울한 현실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을 합리화하며 내면의 위안을 얻고자 한다.
- ⑤ 타인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고독감을 창작 행위를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1~12】 윗글과 <보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게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꽃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연필 같은 것. 남지 않는 것들. 그걸 영영 간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선물이라야 주고받는 마음이 흥가분했다. 사물에 사연이 쌓여 가서 추억이 사물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풍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시절의 나는 어렸던 것임이 틀림없다. ㉠실은 선물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 나 자신의 여림에 대한 불만 쪽에 더 가까운 심사였을 것이다.

선물은 받는 게 더 좋다, 주는 게 더 좋다, 이 둘을 놓고 “너는 어느 쪽이니?” 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해 보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도무지 주는 게 더 좋다고 선택하는 멋진 이들에게 백 프로 공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말해 보고 싶다. 선물은 주거나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되는 것이라고. ㉡선물이 되는 사건, 선물이 되는 시간,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이 되는 말, 선물이 되는 표정. 선물이 되는 사람이 선물이 되는 말과 함께 선물이 되는 표정을 지으며, 자그마하고 사소한 선물 하나를 건넸을 때, 그것은 선물이 되는 시간이자 선물이 되는 사건이다. 그때 손과 손 사이에서 전달되는 사물 하나는 그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다.

- 김소연, 「빙그레의 영역」

11. 다음을 고려하여 윗글과 <보기>를 읽었을 때,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삶의 의미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독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

- ① 윗글을 읽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했던 윤동주 시인의 삶의 태도를 알게 되었어.
- ② 윗글을 읽고, 나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화자처럼 스스로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
- ③ <보기>를 읽고, 물질적 가치를 넘어 사람과의 관계와 추억이 진정한 선물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 ④ <보기>를 읽고, 작가처럼 사소한 일상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 ⑤ <보기>를 읽고, 나는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12. 윗글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소재로, 부모님의 돈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을 유발한다.
- ② ㉡: 미래가 반드시 온다는 필연성을 드러내어 광복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분열되었던 두 자아가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④ ㉣: 과거에 느꼈던 감정의 원인이 선물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자기 자신의 나약함에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 ⑤ ㉤: 작가가 생각하는 선물이 될 수 있는 무형적인 요소들을 나열하며 선물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8연은 1연의 내용을 변주하여 반복한 것이며,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재인식하고 있다. 8연 이후 화자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① 이 시는 화자의 내면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자아가 대화를 나누는 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두 자아는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화해에 이른다.

③ 화자의 내면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창밖의 밤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나타난다고 보더라도, 시선 이동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④ 이 시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차분하고 고백적인 어조로 내면을 성찰하고 있다. 화자의 주된 정서는 분노가 아닌 부끄러움이다.

⑤ ‘밤비’는 계절감을 드러내기보다는 화자가 처한 암울한 시대 상황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2. 정답 ①

이 시는 부정적 현실을 표현한 시어(‘밤비’, ‘어둠’)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미지의 시어(‘등불’, ‘아침’)를 어둠과 밝음으로 대조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등불’은 밝음의 이미지로 희망을 상징하지만 상승의 이미지로 보기는 어렵고, ‘침전’은 하강의 이미지가 맞다.

③ ‘약수’는 분열된 자아의 화해를 의미하는 긍정적 시어이지만, 이때 흘리는 ‘눈물’은 슬픔과 위안이 복합된 것으로 단순히 부정적 의미로만 볼 수 없다.

④ ‘최후의 나’는 내면적 자아를, ‘늙은 교수’는 화자가 처한 무기력한 현실을 상징하는 외부의 존재로 볼 수 있으나, 이 둘을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후의 나’와 대립하는 외부 존재를 찾는다면, ‘늙은 교수’보다는 ‘나에게’로 지칭되는 ‘현실적 자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⑤ ‘대학 노트’는 정적인 사물이고 ‘손을 내밀어’는 동적인 행위이지만, 이 시에서 중심이 되는 대립적 이미지는 아니다.

3. 정답 ⑤

㉠의 ‘침전’은 화자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가라앉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이러한 삶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느끼는 깊은 회의감을 나타낸다.

① 화자가 느끼는 감정의 본질은 도전적인 삶의 태도를 잃은 좌절감이 아니라,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감과 성찰에 더 가깝다.

② 시에 동무를 잃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독감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내면적 성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이다.

③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상실감보다는 화자의 무기력한 상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침전’은 하강의 이미지로 무력감을 상징하며, 신념을 다지는 의지적, 상승적 태도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4. 정답 ③

b), c) ‘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아성찰을 하는 내면적 자아에 해당한다.

a), d) ‘나’는 암울한 현실 상황에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에 해당한다.

5. 정답 ②

이 시는 ‘밤비’, ‘어둠’과 같은 어둠의 이미지와 ‘등불’, ‘아침’과 같은 밝음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대립시켜 암울한 현실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 및 희망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① 이 시는 화자의 내면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답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육첩방’이라는 특정 공간이 제시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④ 이 시의 주된 표현 방식은 자기 고백과 성찰이며,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과거(어린 때)에 대한 회상이 잠깐 나타나지만, 이후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6. [정답] ④

화자는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안일하게 시를 쓰는 자신을 비판하고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시 창작에만 몰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부끄러운 일이다' 등의 구절을 통해 화자가 무력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담하게 털어놓는 고백체의 형식을 띠고 있다.
- ③ 화자는 '육첩방'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는 명상적 태도를 보인다.
- ⑤ 시의 후반부에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는 '최초의 악수'를 통해 화해하며, 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암시한다.

7. [정답] ④

'늙은 교수'는 화자에게 현실의 암울함과 동떨어진 무기력한 삶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늙은 교수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력자라는 감상은 작품의 내용 및 <보기>의 설명과 거리가 멀다.

- ① <보기>의 '이 시는 조국을 떠나 일본에 와 있는 자신'이라는 내용을 고려했을 때, '육첩방'은 공간적 배경이자 화자가 일본에서 유학 중임을 드러내는 시어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 보내 주신 학비 봉투'라는 구절은 화자를 유학 보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의미한다.
- ③ '대학 노트'는 현실적인 고민과 거리가 있는 지식인의 삶을 의미한다.
- ⑤ 어두운 밤에 '등불'을 밝히는 행위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정답] ②

[A]의 '나'는 '침전'이라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무

력감에 빠져 있는 '현실적 자아'를 나타낸다. 반면, [B]의 '최후의 나'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며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 '내면적 자아'를 상징한다.

- ① [A]의 '나'는 자아 성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까?'라는 질문을 통해 치열하게 성찰하는 과정에 있다. [B]의 '최후의 나'는 '시대처럼' 온다는 표현을 통해 필연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
- ③ [A]는 현재의 무기력한 상태를, [B]는 미래 지향적 태도를 보인다.
- ④ [A]의 '나'는 개인의 안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B]의 '최후의 나'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내면적 성숙과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⑤ [A]의 '나'는 화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부정적 자아상이므로, 이상적 인간상으로 볼 수 없다.

9. [정답] ②

㉠에서 화자는 시인이라는 운명을 '슬픈 천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암울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뇌를 드러내는 것이지, 시인이라는 운명에 대한 자부심이나 일반적인 창작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① '육첩방'은 일본식 방으로, '남의 나라'라는 구절과 함께 화자가 고국을 떠나 이국땅에 홀로 있음을 보여준다.
- ③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모습은 암울한 현실과 동떨어진 화자의 무기력한 일상을 보여준다.
- ④ '침전'이라는 시어는 화자가 무력감과 절망감 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강적 이미지이다.
- ⑤ ㉠ 앞부분의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라는 현실 인식과 대비하여, 시가 쉽게 쓰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 [정답] ③

화자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고백한다. 이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달리, 자신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고 안일하게 시를 쓰고 있다는 윤리적 성찰의 결과이며,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 ① 화자는 현재의 삶이 무기력하다고 느끼지만, 어떤 구체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어린 때 동무’를 잃었다고는 하지만, 시의 중심 정서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상실감보다는 현재 자신에 대한 성찰이다.
- ④ 화자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적으로 성찰할 뿐, 현실 순응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동무를 잃어버리고’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시는 인간관계의 단절보다는 자기 내면의 분열과 통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11. 정답 ⑤

<보기>의 작가는 과거에는 사라지는 선물을 좋아했지만, 현재는 선물 자체보다는 그에 얽힌 시간과 사건,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독자의 반응이 선물의 ‘물질적 특성(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작가의 현재 인식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① 윗글은 화자의 치열한 자기 성찰 과정을 보여주므로, 독자는 이를 통해 시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 ② 윗글의 화자가 보여주는 성찰적 자세는 독자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고민하게 하는 윤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③ <보기>는 선물의 의미가 사물에서 ‘되는 것(시간, 사건, 사람 등)’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므로, 독자는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 ④ <보기>는 일상적 소재인 ‘선물’을 통해 삶의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주므로, 독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성찰할 수 있다.

12. 정답 ①

㉠의 ‘학비 봉투’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소재는 맞지만, 화자는 이를 받고 무기력하게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자신을 성찰하며 부끄러움을 느

낀다. 부모님의 돈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자괴감이 드러나기보다는, 안락한 현실과 암울한 시대 상황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 ② ‘시대처럼’이라는 표현은 역사의 흐름처럼 ‘아침(광복)’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과 확신을 보여준다.
- ③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라는 구절은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화해를 청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작가는 선물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추억이 쌓이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 ⑤ 작가는 사건, 시간, 사람, 말, 표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선물의 의미를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